



아시아 최고의 맥주공장이 되기 위한 그들의 도약

-오비맥주(주)광주공장-



▲ 성 훈 상무

6월의 단비를 머금은 초록빛 나뭇잎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잎사귀 끝에 매달려 떨어지는 물방울은 땅을 축이게 하고, 숨쉬게 만드나.

우리내 안전도 그 청초한 물방울처럼 산업의 목을 축이고 숨을 쉬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산업에 한 줄기 생명수로 산업발전에 한걸음 한걸음 박차를 가하며 아시아 최고의 맥주공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오비맥주(주)광주공장을 찾아가 그들의 안전활동과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 안전 · 환경 · 품질의 균형있는 하모니

어떤 맥주보다도 목넘김을 좋게 하고, CB만의 강화발효공법을 사용하여 뒷맛이 깔끔한 맥주를 연간 3,200만 상자 가량 생산하는 오비맥주(주)광주공장은 1987년 준공되어 그 다음해인 1988년 '이름



다운 공장'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장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보다 양질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시작된 광주공장은 2000년에 ISO 9001을, 2003년에는 ISO 14001, OHSAS 18001을 획득하는 등 안전·환경·품질의 균형을 이뤄 성장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 지혜롭게 일하자, 열린마음으로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보다는 '지혜롭게 일하자' 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고 강조하는 성훈 상무는 같은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후에 나타나는 양적·질적인 차이는 근로자의 지혜에 따라 좌우된다고 얘기한다. 지혜에서 비롯된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 쾌적한 작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성훈 상무는 매주 수요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팀미팅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임을 강조하며, 기업에 안전문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근로자 스스로 안전에 임하여 노력하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팅에 앞서 자료나 책을 나눠주고 그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배우고 보충한다. 일괄적인 강의가 아닌 직원 모두가 강사가 되고 학생이 되는 이른바, 산교육인 것이다.

이외에도 「재해율, 고장율, 불량률 Zero」를 향하여 도약하고 있는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과 함께 분기별 안전제안제도, 외부협력업체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안전교육과 유해·위험 작업의 철저한 사전 허가·승인을 통해 선안전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점검·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 공장별로 Cross Check를 실시하거나,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년 1회 외국의 전문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된 사항은 일정한 절차 후 개선조치하고 자체적인 점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캐치하는 그들의 숨은 시각까지 배워 1석2조의 효과를 누린다.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광주공장

집중안전포커스



광주공장 사람들은 이곳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주말이면 주변 기관이나 단체에게 공장내 야구장을 개방하고, 매년 어린이날에는 공장 전체를 개방하여 어린이 사생대회, 보물찾기, 영화 상영은 물론 함께 하는 어른들을 위해 맥주도 제공한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2,500여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에 화답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컸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맥주에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마라톤·야구인 대회 등을 후원하며, 맥주가게 창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월2회 무료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외에도 돈보다는 생활의 질을 중요시하는 요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도 아끼지 않는다. 헬스장과 사우나실 등을 통한 체력단련은 물론 생활잔치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의욕을 향상시키고, 인라인스케이트, 볼링, 당구, 낚시 등의 사내서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각자의 맡은바 업무를 지혜롭게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회사의 발전으로 연계시켜 아시아 최고의 맥주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는 오비맥주(주)광주공장에서 「아시아 최고」라는 수식어가 바로 코앞에 다다랐음을 볼 수 있었고, 근무복 왼쪽에 새겨있는 ‘안전제일’ 마크처럼 안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지만 평소 고개돌려 마크를 보지 않는 것처럼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음을 성훈 상무는 지적하고, 몸의 일부로, 생활의 일부로 여겨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의식화해야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마쳤다. 

〈성호연기자〉

